

유엔 안보리 北 러시아 파병 공방...“총알받이” “파병 정당”

美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위협” 황 대사 “국제사회와 단호한 대응” 북 “러시아 안보 위협 개입 당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한국·미국 정부 대표와 러시아·북한 정부 대표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안보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

황준규 주유엔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일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러 간 군사협력은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자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러 간 전례 없는 군사협력으로 유라시아 동서 양쪽의 지정학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상황 발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이는 갈등의 심각한 확산을 의미한다”며 “또한 러시아가 점점 철박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에 점점 더 군사적으로 의존하면서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

과 이란의 능력이 재정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대사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북한 병사들은 현대전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 평양의 정권이 이 경험 많은 부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존재로 움직일 수 없다면 다른 형식과 행동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 정부 대표는 북한군 파병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서 사실상 파병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이라며 “서방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

하는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에 군사력과 정보를 지원할 권리가 있는 반면 러시아의 동맹국은 비슷한 일을 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를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라며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네벤자 대사는 이날 발언 마무리 전 한국을 향해 “서방의 교묘한 수작에 속지 않을 정도로 한국 동료들이 현명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우리는 모스크바와 서울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한국의 자제심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낙관적”이라며 “여론조사에서도 한

국 국민의 절대 다수는 우크라이나 갈등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음을 보여줬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 유엔 대표도 참석해 러시아의 주장을 거들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전자, 전투기 등 다양한 군사장비를 공급을 확대해왔다”며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러시아 영토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 경제, 군사 및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고, 이는 북러 조약에 따라 국제법상 규범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만약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 이익이 미국과 서방의 지속적인 위협한 시도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남 먹거리 유럽 식탁에...김영록 지사, 농수산물식품 3천만 달러 수출

오스트리아 판아시아와 업무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서 3000만 달러의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김영록 지사는 30일(현지시간) 판아시아(PanAsia) 본사에서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했다. 판아시아는 8600개 이상의 거래처를 가진 유럽 내 아시아 식품 유통 1위 기업이다. 한·일·중 식자재 약 2700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판아시아는 앞으로 5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전남 우수 농수산물식품을 유럽시장으로 수입하게 된다. 전남도는 농수산물식품 해외 마케팅 및 수출 판로 확대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정종완 판아시아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전남도 상설판매장 신청을 계기로 시작된 전남도와 판아시아의 인연이 어느덧 4년차를 맞았다”며 “다양한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을 유럽시장에 알리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판아시아는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유럽시장 개척과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판아시아 본사에서 열린 ‘판아시아 농수산물식품 수출 업무협약식’에 참석, 판아시아 정종완 회장과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은 케이(K)-푸드 인기에 반영해 전남의 맛을 유럽 전역으로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유럽 소비자에게 전남의 고품질 영양 만점 먹거리를 소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5억7523만 달러다. 이 가운데 유럽 주요국 수출액은 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6.1% 증가했다. 김, 커피, 음료류가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전북 익산~전남 여수 179.4km

전남 동부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라선 고속화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2조원을 들여 전북 익산~전남 여수 구간(179.4km)을 고속화해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도권~전라권 간 통행시간을 단축, 접근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전라선의 굴곡, 급커브 등 선로를 개량해 고속화가 가능해져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여수-용산을 2시간 이내로 30분

이상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사업비 대비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는 등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서면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도는 내년 10월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전남과 전북지역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해당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2027년 10월까지

전남도가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 지역은 나주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했다.

에너지 국가산단단지 예정 부지는 첨단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산단단지 지정될 예정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산단단지의 핵심은 에너지밸리와 전력 반도체·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육

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79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김승재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간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국립의대 공모 제안 설명회...최종 평가지표 공개

20일까지 공모, 21~23일 평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지난 31일 나주 동신대에서 목포도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정부 추천 공모 제안 요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역사는 ▲의대·대학병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사업 적합성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1대학 2병원 설립안 준수 ▲

실제 추진 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실행가능성 등 3가지 기준을 기본원칙으로, 사업개요, 대학교육, 대학병원, 의대와 병원 운영계획 등 4개 영역, 15개 지표를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모는 기존 공개 된 바와 같이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간 진행하고 1차 공모에서 단독 응모 또는 응모 대학이 없을 경우,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2차 공모를 실시한다.

평가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면, 대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점수를 확정

하고 추천 대학을 선정한다는 게 용역사 설명이다.

다만, 공모 진행 중에도 두 트랙 방식 추진은 유지하며, 공모를 최종 마감하는 20일까지 양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공모를 잠시 보류하고 ‘통합의대’ 방식을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용역사 관계자는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면서 “평가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A)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A)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3-A) 입안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도산동 1024-7번지 일원 도로개설
2) 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 도산동 1024-7번지 일원
3) 규모: L=87.5m, B=8m이하(7.4m), A=934㎡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 일자	비고
	등급	면적 (㎡)	폭원 (m)							
신설	소로	3	A	8m 이하	국지 도로	87.5	송정동 916-19	도산동 1021-6	일반 도로	-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A	-노선신설 -B=8m이하(7.4m) -L=87.5m	-도산동 1024-7번지일원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의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 신설

2.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기간: 광주시보 게재일로부터 15일간
3. 열람장소: 광산구청 건설과, 도산동 행정복지센터
4. 관련도시: 개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건설과(062-960-89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서기 2024년 10월 25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4년 10월 28일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회사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채권금액이 있으시면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호남벤처오피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4호 266, 3층
청산인 김영진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유재훈(580802-1XXXXXX)
• 최후주사: 전남 장성군 남면 불정길 12-11
피상속인 망 유재훈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 단987호로 신청하여 2024년 10월 2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유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1월 1일
• 상속인: 1. 유승현(860821-2XXXXXX) 익산시 하부동 13길 26, 105동 1311호 (영등동, 우남그랜드타운)
2. 유재현(050509-2XXXXXX) 익산시 고봉로34길 5-2, 105동 406호 (영등동, 우남샘물타운)
• 신고기간: 2024. 11. 1. ~ 2025. 1. 11.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유승현의 주소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1월 1일 주주서면에서 자본총액 금50,000,000원을 금1,5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4,850주를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5,000주를 15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 하였는 바,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위 같은 기간 내에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일
주식회사 자택에이치종합컨설팅
광주광역시 남구 현충중앙로 64, 블루타워 601호(임남동)
대표이사 고재영
대표이사 문승현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0월 31일 임시주주 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300,000,000원을 금 7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130,000주 중 보통주식 60,0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0,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로부터 2024년 12월 02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4년 11월 1일
주식회사 한맥디자인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181
대표이사 최경관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0월 31일 임시주주 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500,000,000원을 금 84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150,000주 중 보통주식 66,0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0,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로부터 2024년 12월 02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4년 11월 1일
주식회사 한맥디자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60번길 30 (대촌동)
대표이사 최경관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0월 31일 임시주주 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500,000,000원을 금 84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150,000주 중 보통주식 66,0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0,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로부터 2024년 12월 02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4년 11월 1일
주식회사 한맥디자인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177
대표이사 최경관

지국안내

북구	• 동광 266-1920 • 동촌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동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부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영 222-9054 • 송정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봉선 673-6836 • 송정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삼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천 376-7153 • 치평 376-6511
광산구	• 동암 603-0311 • 화정 369-1625
진성구	• 윤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칠전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